

산재 노동자 10명 중 8명 중소기업장

광주·전남 올 3862명 50인 미만 사업장서 발생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킴이' 10만명 양성키로

광주·전남지역 산업재해 근로자 10명 중 8명은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장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올들어 10월 말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4906명으로, 이 가운데 78.7%인 3862명이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지역 산재 근로자 5266명 중 4108명(78.0%)이

중소 사업장으로, 대부분의 산재가 중소기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선임하거나 전문 대행기관의 관리를 받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장은 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광

주고용노동청은 50인 미만 중소기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지킴이' 양성사업을 실시, 지난 24일 첫 번째 교육수료자들에게 인증서를 줬다. 안전보건지킴이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직·반장 등 관리감독자와 시공능력평가액 1000위 이상 건설업체의 소속 기술관리직·작업반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8시간(서비스업 4시간) 교육을 받으면 인증서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10만명의 '안전보건지킴이'를 양성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 중소기업장은 지킴이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교육인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으로 인정받고, 재정지원 사업인 클린사업신청 때 우선 지원을 받게 된다. 또 고용노동부의 각종 재해예방 지도·점검에서도 면제된다. 안전보건지킴이로 활동하는 근로자는 향후 안전보건 관련 자격 취득 때 우대를 받는다. 송문현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50인 미만 중소기업장에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케이크 위생점검 연말을 앞두고 선물용 케이크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북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28일 두암동의 한 케이크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여부에 대해 위생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55개 업소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까지 실시된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FTA, 동네상권 보호대책 뭘가”

광주·전남 소상공인들, “SSM에 지역업자 설자리 없다”

“SSM 진출은 주변 슈퍼마켓뿐만 아니라 제과점 등 소규모 자영업자도 설 자리를 잃게 된다.” “FTA 체결로 해외 대형 유통업

체들이 국내 진입을 시도할텐데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답답하다.” 28일 광주 상무지구 센트럴호텔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소기업

소상공인위원회'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은 SSM 진출, 신용카드 수수료, 동네상권 보호 대책 등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호(광주양동시장 대표) 위원장을 비롯해 임형

진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영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김동규 금호월드시장조합 이사장은 “롯데마트가 디지털사업장이란 이름으로 2018년까지 100여개 점포를 개점할 예정”이라며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승엽 광주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장은 “대형업체들의 할인행사로서민 불편이 심각하다”며 “교통환경유발부담금을 강화해 일정부분 공익으로 환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28일 광주 센트럴호텔에서 열린 '광주·전남지역 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 회의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FTA 대책, 동네상권 보호 등을 촉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제공>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은행, 사회공헌활동 강화

다음달 조직개편 ... 사무국 전담임원 선임

다음달 조직개편을 앞둔 광주은행이 사회공헌사무국 전담임원을 두고 사회공헌활동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와 공생경연에 나선다. 광주은행은 다음달 1일자로 사회공헌사무국장 겸 홍보실장 겸 KJB금융박물관관립사무국장 겸 임원인 김준원 국장을 본부장으로, 기업개선회생본부장 겸 기업회생부장인 양승재 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사 18면> 이번 인사는 광주은행이 지난 2008년 송기진 행장(제10대) 부임과 함께 금융권 최초 사회공헌업무를 담당하는 사회공헌사무국을 설치한 후 사회

공헌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전담임원을 선임하고, 지역사회와 공생하는 은행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지역발전본부에 속한 사회공헌사무국이 가칭 사회공헌사업본부 등으로 독립해 지역사회공헌활동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창립 43주년을 맞은 송기진 광주은행장은 기념사에서 지역민과 동반상생을 강조하며 '큰 과실은 다 먹지 않고 남긴다'는 주역의 '석과불식(碩果不食)'을 강조했다. 송행장은 “금융계의 탐욕을 규탄하는 시위가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움직임은 자기성찰의 기



5500만달러 외화차입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유바프은행(UBAF)과 '미화 5500만달러 외화차입서명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제공>

회로 삼아 수익성만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고 공공성을 중시해 달라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해야 한다"며 지역민과의 상생을 강조했다. 이번 인사도 이같은 송행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은행은 이미 지역색과 이슈에

맞는 '지역사랑 봉사단' 'KJB사랑샘터'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과 외국인을 위한 공익형 금융상품 확대와 사랑샘터 등 다양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전남 가을배추 수출로 활로 모색

aT광주·전남지사, 대만에 1200여t ... 120만달러 소득

전남산 가을배추 1200여t(120만 달러)이 대만으로 수출된다. aT광주·전남지사(지사장 이종경)는 “과잉생산으로 값이 폭락한 전남산 가을배추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삼왕농산과 유니통상(주)이 영암과 진도지역 배추 1230t을 수출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업회사법인 삼왕농산은 지난 26일부터 영암산 가을배추 315t(20컨테이너)을 수출중에 있으며, 앞으로 315t의 추가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유니통상(주)도 진도 서진영농조합법인의 가을배추 600t 정도를 수출 계약하고, 28일부터 선적을 시작했다. aT광주·전남지사는 해외 지사를 통해 유력 바이어를 발굴, 수출업체에 연결했다. aT는 이번 수출 물량에 대해 기존의 수출물류비(90원/kg)와 함께 추월가인센티브로 kg당 40원씩 지원한다. 이종경 지사장은 “이번 가을배추

수출 물량은 많지 않지만 수출을 통해 시장을 완전히 격리시킴으로써 산지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aT는 수출 이외에도 직거래장터 개설 지원 등 다양한 가을배추값 안정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남지역 가을배추 재배면적은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3897ha이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33만4000t으로 추정된다. /송기동기자 song@

기업 체감경기 악화 2년8개월 만에 최저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2년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600대(매출액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12월 BSI 전망을 조사한 결과 94.8을 기록, 2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다. 이는 2009년 4월 86.7을 나타낸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전경련은 유럽과 미국의 재정위기가 지속적으로 확산할 우려가 대두하는 가운데 중국의 소비자들이 상승과 대출은행 부실화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대내적으로 3분기 가계 부채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4%에 미치지 못하는 등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업종별로 제조업(90.0)은 부정적으로 전망됐고, 서비스업(101.2)과 전기·가스업(142.9), 펄프·종이·가구(118.8) 등은 긍정적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미국 자동차 브랜드 평가 1위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시판중인 자동차 브랜드 평가에서 동반 1위에 올랐다. 28일 미국의 자동차 전문 조사업체인 트루카닷컴(TrueCar.com)이 최근 발표한 브랜드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각 A+ 등급을 획득하며 A 등급에 그친 혼다와 스바루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현대차는 트루카닷컴이 올해 3월 발표한 업체별 순위에서 A 등급으로 2위에 올라 처음으로 3위권 진입에 성공했으며, 특히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현대·기아차는 최근 미국에서 업계 최저 수준의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요 차종의 판매 호조로 늘

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적은 가격변동 폭, 우수한 품질을 기반으로 잔존가치 및 고객 충성도가 높아진 것이 좋은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현대차는 전했다. 현대·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 지난 10월까지 작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95만411대를 팔아 시장 점유율 9.0%를 달성해 GM, 포드, 도요타, 크라이슬러, 혼다에 이어 6위를 달리고 있다. /연합뉴스

| | |
|-------------|-------------------|
| 코스피지수 | 1815.28 (+38.88) |
| 코스닥지수 | 486.36 (+6.81) |
| 금리 (국고채 3년) | 3.44% (+0.03) |
| 원·달러 환율 | 1154.30원 (-10.50) |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대학편입 정원 대폭증가!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 재수 | vs | 편입 |
|--------------------|------|---------------------------|
| 1학년입학 / 4년재학 | 졸업시기 | 3학년입학 / 2년재학 |
| 고등교과목 전과목 (약 16과목) | 준비과목 | 영어(인문) / 영어,수학(자연) |
| 각 군별 1회 지원 | 복수지원 | 대학별 지원(최다 20회 이상 복수지원 가능) |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12월 19일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 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